

“예산집행 효율화” “문화행정 획일화”

대인시장·예술의 거리 예술 지원 사업, 문화재단→광주시 이관 ‘기대반 걱정반’

올 예산 8억원 사업자 모집
자격요건 완화 참여 폭 넓혀
상인·작가 갈등 해소 급선무

광주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즉 대인시장·예술의 거리 문화사업을 올해부터는 광주시가 맡아 진행한다.

하지만 지역 문화계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과 함께 광주시의 ‘부족한 문화 마인드’가 자칫 그동안 진행돼온 문화사업의 흐름을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광주시의 간접 보조사업자로 지난 3년간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인력부족과 시스템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 직접 시행이 불가하다”고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올해부터는 광주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7일 ‘2014년도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보조사업자 제안 모집 공고를 해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8억 원으로 사업 제안서 접수일은 오는 18일이다.

이 사업은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등 원도심 문화지구에 협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2011년 광주문화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재단이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광주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됨에 따라 지역 문화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 문화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사진은 대인시장 사업 중 가장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인예술야(夜)시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광주시→광주 문화재단(간접 보조사업자)→사업 실행사

로 이어지던 구조에서 추진단→광주시→보조사업자 구조로 바뀌게 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진행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3년 이내 단일용역 수행실적이 2억 원 이상인 업체’라는 그동안의 자격 요건을 올해는 ‘보조예정금액 10분의 1 이상(대인시장 5000만 원, 예술의 거리 3000만 원)’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낮춤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문화마인드를 갖춘 문화단체들이 참여 폭을 넓혔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높은 자격 요건으로 그동안 ‘이름만 빌려주는 업체’의 배반을 막는 데는 ‘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사업 총감독을 맡았던 신호연씨는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광주

과 예술의 거리 사업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운영한다.

반면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기획자들이나 일부 문화계 관계자들은 마냥 긍정적 이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가 그동안 보여준 ‘일방적인 문화행정’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지역의 문화 기획자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효율성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 행정(광주시), 작가, 상인 등 여러 주체들 사이에서 창의적인 예술경쟁을 해온 문화재단의 역할을 광주시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 총감독을 맡았던 신호연씨는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광주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궁금하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여론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업자를 선정, 진행느냐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켜봐야겠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벤트 형태의 관광사업으로 보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인, 작가, 기획자들 사이의 갈등 불합은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대인시장